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원유, 세계】 OPEC+, 하루 200만배럴 원유 감산

【가스, 유럽·러시아】 러시아 가스 의존 낮춰가는 유럽, 새 가스관 잇달아 가동

【원자재, 중국】 중국 최대 황린 생산지 원난성, 황린 감산령으로 가격급등 우려 확산

【가스, 호주】 호주 LNG 3社, 내년 가스 추가 생산 합의

【리튬, 중남미】 전기차 핵심소재 리튬 주산지 중남미, 민간 배제 국영화 생산체제 구축 중

【핵심광물, EU】 독일·프랑스, EU '핵심광물 원자재법' 우선 추진사항 제시

【에너지, EU】 EU, 겨울철 에너지 부족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가능성 제기

【가스, 러시아】 러시아, '사할린-2' LNG 수출 다각화 전망



GVC 뉴스 더하기

- ①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기업 동향 및 대응
- ② 노르트스트림 가스누출 사고 등 심화되는 유럽 에너지위기



GVC 기초상식

수소경제 2편 -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GVC 돌보기

주요국 배터리 재활용 사례 (한국편)



GVC 전문가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임지훈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원유, 세계】 OPEC+, 하루 200만배럴 원유 감산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23개국 산유국 연합체 'OPEC+'가 10.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하루 200만 배럴(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규모의 역대급 원유 감산을 결정함
 -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을 업적으로 선전하던 미국 정부는 OPEC+를 상대로 대규모 원유 감산을 결정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했으나 산유국들은 하루 200만배럴 감산 강행
-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유가가 하락하자 OPEC+가 원유 감산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하며,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제기
 - 컨설팅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OPEC+의 공급제한 움직임은 가격상한제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언급
- OPEC+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물 가격은 이틀간 7.03달러(8.84%) 상승하여 10.4일 86.52달러에 거래를 마칩
 - WTI 가격(달러/배럴, 11월물) : (6.8) 122.11 → (9.26) 76.71 → (10.4) 86.52

출처 : 한국경제, 매일경제(22.10.4), 연합뉴스(22.10.5) 등 언론보도 종합

■ 【가스, 유럽·러시아】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낮춰가는 유럽, 새 가스관 잇달아 가동

- 천연가스 수입량의 80%를 러시아에 의존해 온 불가리아의 에너지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에서 불가리아로 이어지는 182km 길이의 IGB(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가스관이 10.1일 가동 시작
 - 이 가스관은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거쳐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가스전인 샤 데니즈로부터 가스를 수송하는 아나톨리안 횡단 가스관(TANAP)으로 아드리아 횡단 가스관(TAP)과 연결됨. 지난 7월 공식 개통되었지만 운영되지 않다가 10.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연간 최대 30억㎥ 물량의 천연가스 수송 가능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하여 "유럽은 러시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불가리아-그리스 가스관 개통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
- 이에 앞서 9.27일 개통한 '발틱 파이프' 가스관도 10.1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으며, 새 가스관을 통해 노르웨이에서 폴란드로 연간 천연가스 100억㎥, 폴란드에서 덴마크로 30억㎥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짐
- 한편, 유럽연합 정상들은 10.7일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

출처 : 한겨레(22.10.3), YTN(22.10.3) 등 KOTRA 유럽지역본부 종합

■ 【원자재, 중국】 중국 최대 황린 생산지 원난성, 황린 감산령으로 가격급등 우려 확산

- 원난성 정부가 제정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사용·관리방안(22.9~23.5)'에 따라 9.26일부터 원난 황린 생산기업들이 감산 및 생산 중단에 돌입
 - 원난성은 중국 전체 황린 생산능력의 41.5%를 차지하는 주요 황린 생산기지로 업계는 황린 가격 상승세가 10월 초 국경절 연휴 이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
 - 황린은 인의 동소체 중 하나로 핸드플래시 공정 중 일부 층을 깎아내는 '고선택비 인산'의 제조 원료임

- 최근 중국 서남부 지역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인해 원난 황린 생산량은 800톤 규모로 감소하고 가격은 톤당 3.8만 위안까지 치솟은 상태.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서남부 지역 갈수기(가을·겨울) 전력부족 심화로 황린 가격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9.1~15일 원난성 일평균 황린 생산량은 1,385톤이었으나 9.28일 805톤 수준으로 감소

출처 : 중국보고(22.9.29)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가스, 호주】 호주 LNG 3社 내년 가스 추가 생산 합의

- 9.30일 호주 자원부는 호주 대표 LNG 업체들인 '퀸즐랜드 커티스 LNG'(셀이 운영), '호주 퍼시픽 LNG'(코노코 필립스가 운영), '글래드스톤 LNG'(산토스가 운영) 등이 '23년 157페타줄(약 57만5천 562톤, 1페타줄은 약 3천666톤) 규모의 호주 내수용 가스 추가 생산에 합의했다고 밝힘
- 추가 생산분은 해외보다 국내 시장에 먼저 공급되어야 하며 가격도 해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함
- 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은 "이번 합의로 예상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며 "국내 가스 안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언급하고, "이번 협약은 이들 3社の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호주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안전한 투자처"라고 강조
- 최근 호주 가스 생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수 공급 대신 수출을 늘려 '23년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 56페타줄(약 20.5만톤)의 가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이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내수 물량 확보를 위한 LNG 수출 제한을 요청하여 정부가 수출규제 방안을 검토하던 상황

출처 : 연합뉴스(22.9.30) 등 언론보도 KOTRA 멜버른무역관 종합

■ 【리튬, 중남미】 전기차 핵심소재 리튬 주산지 중남미, 민간 배제 국영화 생산체제 구축 중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서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국영기업이 전담하는 국영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광물 공급망 통제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의 주산지로 꼽히며, 이들 세 국가의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55%에 달해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기도 함
-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하에서 뽑은 소금물을 햇볕에 말려 그 안에 녹아있는 리튬을 얻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지하로 광산을 파고 들어가 채굴하는 다른 지역보다 생산비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리튬 삼각지대' 선두주자 칠레는 최근 환경보호, 자원 안보를 이유로 리튬 광산 장악력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원자재 채굴 민영화를 '적폐'로 보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 국영기업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략자산 민영화 금지' 법제화까지 검토 중
- 아르헨티나 텔람통신에 따르면 국영 석유·천연가스 생산기업 YPF는 10월 처음으로 리튬 생산을 위한 탐사를 개시할 예정으로, "지역 광산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0km² 규모의 서부 카타마르카주 피암발라 지역 개발 의사를 밝힘
-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끌던 좌파 정권 시절인 '08년 이미 리튬 산업을 국영화했음. '21년 기준 리튬 생산량은 칠레의 하루 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세계 최대 매장량인 2,100만톤(미국지질조사국 발표 기준)을 고려할 때 국영화에 따른 향후 잠재력은 매우 큼
- 북부 소노라주 등지에 리튬 매장지를 보유한 멕시코 역시 국영기업을 설립할 방침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월 "리튬은 정부의 것도 아니고 멕시코와 국민의 것"이라며 국가에서 탐사와 채굴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 매일경제(22.9.28), 연합뉴스(22.9.29) 등 KOTRA 중남미지역본부 종합

■ 【핵심광물, EU】 독일·프랑스, EU '핵심광물 원자재법' 우선 추진사항 제시

-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관련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한 공동 입장문 발표
 - 앞서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핵심광물 원자재 수요가 2030년까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핵심광물 원자재법' 추진을 향후 수년간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입장문에서는 △중요 원자재 공급망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핵심광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확보 등을 중요 정책 사항으로 제시
 - 구체적으로 ▲핵심광물 원자재 역내 채굴·생산 및 재활용 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과 ▲핵심광물 원자재의 채굴-가공-재활용 가치사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발굴 및 취약성 보완 등 제안
 - 입장문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 등과 유사
- EU 이사회는 9.29일(목) 양국 입장문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명하고 EU 집행위도 양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30)

■ 【에너지, EU】 EU, 겨울철 에너지 부족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가능성 제기

- 유럽이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단전 또는 전기배급이 시행되면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현재 유럽에 설치된 약 50만개 통신 안테나 대부분의 백업 배터리 용량은 30분 정도에 불과해 단전·전기배급 등 전력 차단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
 -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력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필수 전력공급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유럽 주요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사들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에게 장비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촉구하고 있음
 - 모바일 네트워크 타워 전력공급 중단시 일부 부품의 손상이 우려됨에 따라 노키아·에릭슨 등 네트워크 장비업체는 전력차단에 따른 장비손상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30)

■ 【가스, 러시아】 러시아, '사할린-2' LNG 수출 다각화 전망

- 러시아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의 새 운영법인인 '사할린에너지'의 안드레이 오호트킨 이사는 9.28일 열린 '2022 오일·가스포럼'에서 LNG 수출지역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힘
 - 인도는 미국 주도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회원국이지만 과거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와 정치·경제·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상황으로, 러-우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라 오히려 수입을 늘려왔음
 - 반면, 영국 석유기업 셸은 사할린-2 프로젝트의 지분 27.5%를 보유하고 있으나 서방 제재에 맞춰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중국·인도 기업 등과 보유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안드레이 오호트킨 이사는 러-우 전쟁 후 운송 선박 등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LNG 장기 구매자들과는 계약을 대부분 갱신하는 등 판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는 '22년 사할린-2 LNG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180억㎥, 판매량은 1천1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사할린-2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 '22.1~8월 사할린-2 LNG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17.6% 늘어난 121억㎥, 판매량은 19.5% 증가한 760만톤 기록

출처: 연합뉴스(22.9.29) 등 언론보도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기업 동향 및 대응

◆ 올해 8월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EV 보급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로 도요타,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도 관련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법안 관련 일본기업들의 현지 반응 및 대응 방향,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 현재 IRA 세액공제 요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법 적용 시기와 배터리 핵심광물 포함 요건이 중요
- 현재 미국에서 구매 가능한 EV 중 70%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23.1월 이후 핵심광물 조달 요건이 추가 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존재하지 않게 됨 (미국자동차협회[AAI])
-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재 확보도 어려운 상황으로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EV나 차량용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 해도 2년 이내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제기

〈美 IRA EV 세액공제 방향〉

- 차량용 배터리에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된 리튬 등 핵심광물을 40% 이상 포함하면 3,750달러 세액 공제('23.1~)
- * 핵심광물 비율은 매년 10%p씩 증가('27년 80%), 보조금 수혜 대상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
- 전극 등 배터리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할 경우 나머지 3,750달러 지원('29년 이후 100%로 상향)

- IRA 대응을 위해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더라도 그간 자동차사들은 양산효과를 높여 비용을 줄여왔기에 배터리 가격상승이 불가피하여 EV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도 수요증가 효과 저하
- 현재 배터리의 원재료는 일정 비율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음
- EV의 비싼 가격대가 소비자가 구입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 정부 의도에 따른 수요증가 여부는 불확실

■ 일본 美 자동차시장 진출 현황

- 미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 2위 규모로 도요타 등 일본 대표 자동차 업체 6개사의 '22.1분기 북미 자동차 판매는 약 600만대, 전세계 판매의 약 30% 비중 차지
- 영업 적자였던 마쓰다를 제외한 5개사의 북미 영업이익은 총 약 1조5,000억엔으로 전체의 약 40% → 닛산, SUBARU는 북미 사업이 해외역 함께 영업이익을 웃돌고 혼다는 북미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0% 차지
- '21년 미국의 EV 판매는 전년대비 2.1배인 63만대로 증가했으나, 일본의 미국 시장 EV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닛산 리프(Leaf) 판매 대수는 약 1만 4,000대에 그침
- '30년 미국 전체 EV 판매는 '21년 대비 약 15.5배인 약 630만대로 미국 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영국 조사회사인 LMC 오토모티브]

■ 일본 업계 대응

- 현재 미국 현지에서 EV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닛산'이 유일하며, 他업체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현지생산 등 공급망 재편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쉽지않은 상황
 - (닛산자동차) 다가와 조지 전무집행임원은 9.2일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분석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대응이 필요하며, (조달과 생산의) 현지화를 더욱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도요타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간부는 "실수요와 정책 속도가 맞지 않다"고 지적
 - (일본 제조사) "자동차社 모두 중국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북미 대상의 EV는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 ▲도요타는 '30년 글로벌 EV 350만대 판매, ▲혼다는 '30년 북미 EV·FCV의 판매비율 40%, ▲닛산은 '31.1분기 미국에서 EV 판매비율 4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

〈일본 자동차 3社 대응 동향〉

구분	주요 대응 방안
도요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미국에서 EV용 배터리에 최대 7,300억엔 투자. 이 중 약 3,250억엔은 미국 투자 - 일본·미국 합계 연간 생산능력 최대 4,000만kWh 확대 목표, 미국에서는 '25년 이후 생산개시 예정
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LG엔솔과 44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여 EV용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 발표 - 연간 생산능력 최대 4,000만kWh, '25년 양산 개시 목표
닛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캔턴공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차량조립라인 개보수, '25년부터 신형 EV 2개 차종 생산 예정 - 이미 스미르나 공장에서도 리프를 생산 중이며, Envision AESC社로부터 조립된 배터리 조달 중

■ 최근 동향 및 전망

- 한국과 일본 메이커들은 현재 IRA의 EV 세액공제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양국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에 지속 재검토 요구 중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 등은 8월말 주한미국대사 접견, 9월 訪美 등을 통해 캐서린 타이 통상대표부(USTR) 대표,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美 상·하원 의원 등에게 한국의 우려를 전하는 등 적극 협의 중
 - (일본) 경제산업상은 9월초 IPEF 각료급 회의 당시 美 통상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의 별도 회담 등을 통해 EV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문제 제기
- 美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 중으로[법정공개시한 12.31], 톰 웨스트 재무부 차관보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협정 관점에서 핵심광물 등 원산지요건을 규명 중이라 밝힘
 - (웬디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IRA 조항은 WTO 규정과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중요한 변수로 공화당이 승리하여 트럼프 前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IRA 등 기후변화 대책이 재차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GVC 뉴스더하기 ② : 노르스트림 가스누출 사고 등 심화되는 유럽 에너지위기

◆ 러시아-독일을 잇는 노르스트림1·2 해저 가스관 폭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독일 2,000억유로 규모의 경제 지원책 발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유럽 내 에너지 갈등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 노르스트림 1·2 누출 사고, '사보타주' 의혹도

- 9.26일 덴마크·스웨덴 해양당국은 배타적경제 수역에 위치한 발트해 '노르스트림1·2 가스관이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총 4곳이 파손되고 천연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
-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 공급은 중단되어 있었으나, 가스관 내부에는 약 7억7,800만㎥의 천연가스가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압력 평형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누출이 멈춘 상태
-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선을 목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러시아의 정치적 파괴 공작 '사보타주(sabotage)' 의혹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한 전세 만회를 꾀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UN 안보리회의 소집 요청과 합동조사 의지를 내비치며 전면 부인
- 가스 누출 이후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가격(10월물)은 1MWh당 10% 넘게 오르며 207.18유로를 기록하였으며, 금번 사고가 '에너지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심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노르스트림1·2 가스 누출 지점
Explosions reportedly damage Nord Stream pipelines causing gas leaks in the Baltic Sea



출처: 가디언(9.29일)

■ 심화되는 유럽 에너지 위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논의

- 10.7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가스 가격상한제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10.3 로이터통신)
- EU는 9.30일 에너지장관이사회의 '에너지 가격 안정대책'에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심해 가스 가격상한제를 제외함

<27개 EU 회원국 별 가스 가격상한제 관련 의견>

국가	입장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향에 찬성 - (그리스) 전기 소비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해 10유로/MWh의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별도 서한을 집행위원회에 발송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등 (EU집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입장 - (독일) 가스 소비량이 많아 가격상한제 도입시 올겨울 가스 확보 우려 - (집행위) 여타 조치 없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수요 증가 위험 존재, 러시아산 가스에만 가격상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 독일 2,000억 유로 가계·기업 지원책에 EU 회원국간 긴장 고조

- 9.29일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가계를 위해 2,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EU 회원국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으로 10.7일 EU 정상회의 동향이 주목됨
- (EU 내부시장위원 티에리 브르통) “독일은 금융시장에서 2,000억 유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다른 EU 회원국들은 그렇지 않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회원국의 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슬로바키아 Karel Hirman 경제 장관) “독일이 우리의 공통시장을 파괴하고 있다. EU 전체가 제조 과정에서 가스에 의존하는 비료 등 슬로바키아 제품의 혜택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을 조달할 재정 자원이 없다.”
-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 “다른 회원국들은 이미 에너지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개입을 시작했다. 우리는 오래전에 다른 나라들이 해왔던 것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 “EU 회원국들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있는 시기에 독일의 지원 패키지는 EU 통합을 위협하는 식인 풍습과 마찬가지로”

GVC 기초 상식 : 수소경제 2편 -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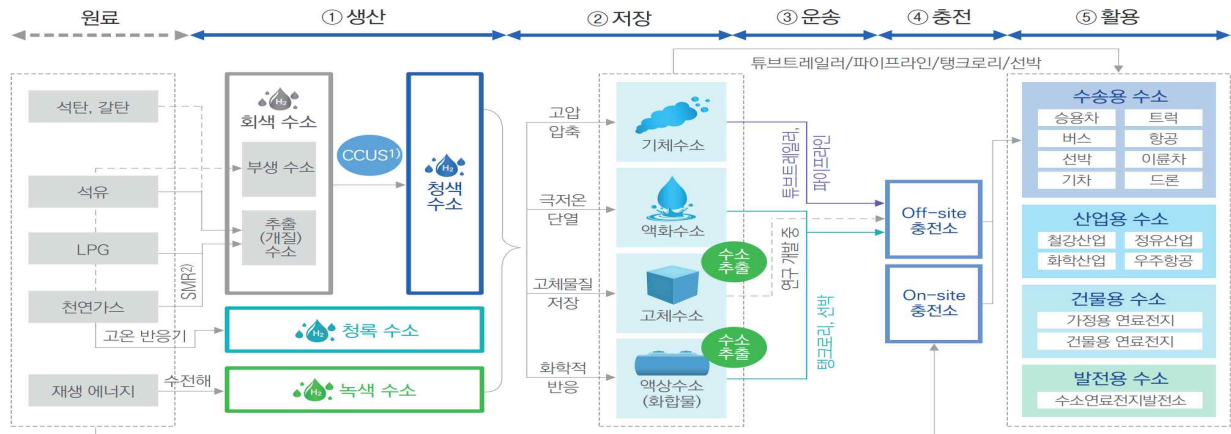
◆ 세계 수소경제 시장규모는 2050년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의 생산에서 저장·운송·충전·활용에 이르는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수소경제 밸류체인〉

29호: 수소산업 개요
30호: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31호: 수소의 충전·활용

■ 수소산업 밸류체인

- 수소산업 밸류체인은 수소의 ①생산 → ②저장 → ③운송 → ④충전 → ⑤활용으로 구성



■ 수소 생산

- (생산원료) 화석연료(석유·천연가스 등),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등으로 생산하며, 생산원료 및 공정에 따라 부생수소, 개질수소, 수전해수소로 구분

	부생수소 Grey	개질수소(추출수소) Grey	수전해수소 Green
생산	석유 코크스 나프타 → 화학공정 → H ₂ (목적 물질)	천연 가스, 물 → 추출 → H ₂ , CO ₂	신재생 에너지, 물 → 수전해 → H ₂ , O ₂
장점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로 발생 추가 설비투자 불필요 높은 경제성	고온·고압에서 가스-수증기 화학반응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할 경우 충분한 생산 가능	물을 전기로 분해 산소만 발생하여 가장 친환경적
단점	대량 생산에 한계 존재	이산화탄소(CO ₂) 발생	낮은 경제성

-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여부 등에 따라 그레이·블루·그린수소 등으로 분류

■ 회색 수소(Grey Hydrogen, 부생수소·개질수소 해당)

- 석유화학·제철공정 부산물 또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촉매반응을 통해 생산(CO₂ 발생)

■ 청색 수소(Blue Hydrogen)

- 화석연료를 활용해 회색수소 생산시 배출되는 CO₂ 포집

■ 녹색 수소(Green Hydrogen, 수전해수소 해당)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CO₂ 배출 無)

■ 청록 수소(Turquoise Hydrogen)

-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하여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여 생산

■ 핑크 수소(Pink Hydrogen)

-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

■ 수소 저장

- (수소) 운반하려는 수소의 물리적 상태(기체·액체·고체)에 따라 운송·저장 방식이 달라짐
 - 기체수소 저장방식이 일반적이며, 액화수소(LH₂)는 냉각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량 저장이 가능함
 - 고체수소 저장방식은 기체·액체수소 저장 방식에 비해 추가적인 상용화 기술개발이 더 필요한 영역
 - (화합물) 수소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액상유기화합물(LOHC*,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또는 암모니아(NH₃)로 변환하여 액상수소(LH₂, Liquid H₂) 형태로 저장
 - LOHC와 NH₃는 액화수소(LH₂)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되며, 특히 액상 암모니아(NH₃)는 액화수소(LH₂)보다 수소 저장밀도가 높아 동일 부피에서 1.5배가량 더 많은 양의 수소 저장 가능
- * LOHC 예시 : 수소 + 톨루엔 → 메틸시클로헥산(MCH, Methylcyclohexane)으로 변환

〈수소의 저장 방식〉

	기체	액체	화합물
저장	<p>고압가스 운송</p> <p>수소 생산 → 압축 → 파이프라인</p> <p>20~450bar</p> <p>고압용기</p> <p>기체 수소를 압축하여 고압용기에 저장</p>	<p>액화가스 운송</p> <p>수소 생산 → 수소 액화 플랜트 → 운송</p> <p>-253℃</p> <p>수소를 영하 -253℃로 냉각하여 액화 상태(LH₂)로 저장</p>	<p>암모니아 등을 통한 운송</p> <p>암모니아 → 운송 → 수소 분리</p> <p>화학결합 (수소+질소)</p> <p>메탄, 암모니아(액상), MCH(액상) 등 형태로 변환 또는 금속 등에 저장</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보편적이나 폭발 위험성 • 튜브트레일러·파이프라인 활용 운송 * 파이프라인은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운송비용이 가장 저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체수소 대비 대량 저장·운송이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음 • 수소액화시설 등 높은 투자 비용, 수소액화시 에너지 투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유조차를 활용한 상온·상압 운송 가능 • 수소 추출을 위해 화학적으로 재변환하는 과정 필요

■ 수소 운반

- 기체 상태의 수소를 40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하여 기체·액체로 운송하는 방식이 일반적
 - 기체 상태의 수소는 배관과 튜브 트레일러를 활용해 운송
 - 액체 상태의 수소(액화수소·액상수소)는 선박과 탱크로리를 활용해 운송

〈수소의 운송 방식〉

구분		운송 방식	적합한 운송 조건
기체 운송		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단거리에 연속적으로 공급• 대규모, 장거리에 연속적으로 공급
		튜브 트레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규모, 중·장거리에 간헐적으로 공급
액체 운송	액화 (LH ₂)	탱크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 제조 및 저장시설과 연계될 경우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규모, 중·장거리에 공급
	액상 (LOHC, NH ₄)	탱크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상물질(암모니아, 액체유기금속 등) 제조시설과 연계될 경우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규모, 중·장거리에 공급



GVC 돋보기 : 주요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한국편)

◆ 최근 환경·경제·공급망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리즈의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정책 동향과 주요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28호: EU, 미국

29호: 일본, 중국

30호: 한국

한국

■ 주요 정책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강국으로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2021년 K-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중

-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표준화 협의회 운영(22.6~), ▲재사용·재활용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인증 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안' 국회 통과(22.7),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2.9) 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가속화
-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각종 폐기물 규제 면제, △재사용 배터리 안전검사제도 마련, △검사부담 완화 조치 시행, △전기차 배터리 임대-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을 관리·추적하는 공공 DB 구축 및 일부 정보 공개, △민간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정부 지원 구체화

■ 주요 기업 사례

① 성일하이텍(RGY) <https://www.sungeelht.com>

◆ 기업 개요

- 국내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 최근 동향

- 미국 인디애나주에 2차전지 처리시설인 리사이클링파크 설립계획 확정(22.10)
- 군산, 헝가리, 중국, 인도 등 8개의 리사이클링파크와 2개 하이드로센터 운영



②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 LTD) www.lgensol.com

◆ 기업 개요

- LG그룹 계열사로 국내 최초 리튬이온전지 양산에 성공한 국내 배터리 3社 중 하나

◆ 최근 동향

-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는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Li-Cycle)과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니켈 등 핵심 원재료를 공급받으며 美·EU의 환경규제 대응 및 ESG 대표기업으로 성장



③ SK에코플랜트(SK ecoplant co.,Ltd) www.skecoplant.com

◆ 기업 개요

- SK그룹 계열 종합 건설업체로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 최근 동향

- 세계 1위 전자기기 폐기물 업체인 TES 인수(22.2)
-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트'와 5천만 달러 주식매매계약 체결
- 전구체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CNGR과 배터리 재활용 및 소재공급 협약 체결(22.9)



④ SK온(SK On) <http://sk-on.com>

◆ 기업 개요

-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 자회사로 국내 배터리 3社 중 하나

◆ 최근 동향

- 포스코홀딩스와 폐배터리 수거 네트워크 공동 구축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22.6)
- SK에코플랜트 등과 재사용 운영협약 체결(21.11). 기아자동차 '니로EV'의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제조하고 이를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 활용(22.5)

⑤ 포스코홀딩스(Posco On) www.posco-inc.com

◆ 기업 개요

-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 최근 동향

- 폴란드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PLSC(Poland Legnica Sourcing Center)를 설립(22.8)하여 성일하이텍과 협업 운영
- 폐배터리를 블랙매스 형태로 포스코HY클린메탈에 공급해 원소재 추출



⑥ 포스코HY클린메탈(Posco HY Clean Metal)

◆ 기업 개요

- 포스코와 중국 화유코발트가 65:35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21.5)

◆ 최근 동향

- 하이니켈 NCM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소재를 추출해 다시 양극재 소재로 공급하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23.1분기부터 제품을 판매할 계획

⑦ 삼성SDI(Samsung SDI) <https://www.samsungsdi.co.kr>

◆ 기업 개요

- 삼성그룹의 전자관, 이차전지 제조업체로 국내 배터리 3社 중 하나

◆ 최근 동향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연구개발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국내뿐 아니라 헝가리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거점으로 확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의 재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기술개발 등 참여

⑧ 현대자동차그룹(Hyundai Motor Company) www.hyundai.com

◆ 기업 개요

- 국내 EV 완성차 기업

◆ 최근 동향

- UBESS(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로드맵 마련
- 현대글로벌비스를 통해 전세계에서 폐배터리 수거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취득. 국가별 복잡한 배터리 관련 규제를 충족하는 물류 프로세스 보유
-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통해 수거한 최상위 품질의 폐배터리를 현대모비스에서 노후차량 및 AS용 배터리로 재제조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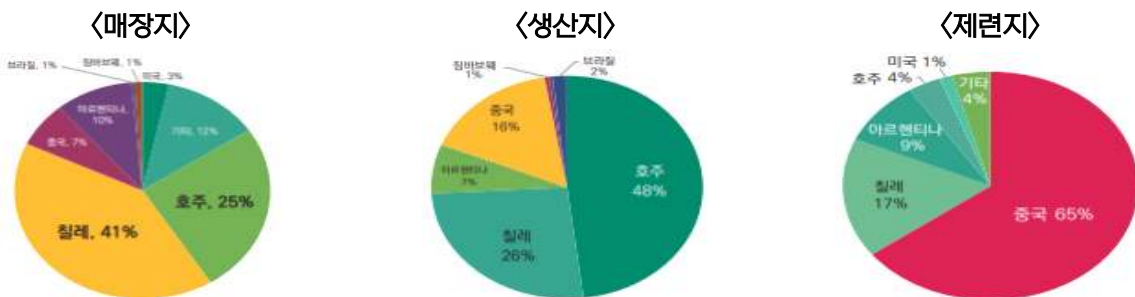
GVC 전문가 :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 리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임지훈

◆ 리튬은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로 최근 리튬 가격이 급등하여 리튬을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1세기 하얀석유로 불리는 리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리튬 공급망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 리튬 개요

- (정의) 리튬(원소기호: Li, 원자번호: 3)은 주기율표상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활성이 높고 전류가 쉽게 흘러 **배터리·알루미늄 산업에서는 “21세기 하얀 석유”**로 불림
 -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전체 수요에서 배터리 수요가 89%에 달하며, 2040년 리튬 수요는 2020년 대비 4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IEA, 2021)
- (분포) 리튬은 **염호(소금호수)나 경암(화강암)**에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 리튬의 87%는 염호에 매장
 - (매장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7%가 호주와 칠레에 위치
 - (생산지) 호주, 칠레 및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90% 차지
 - (제련지) 중국이 전체 제련 리튬 화합물 생산의 65%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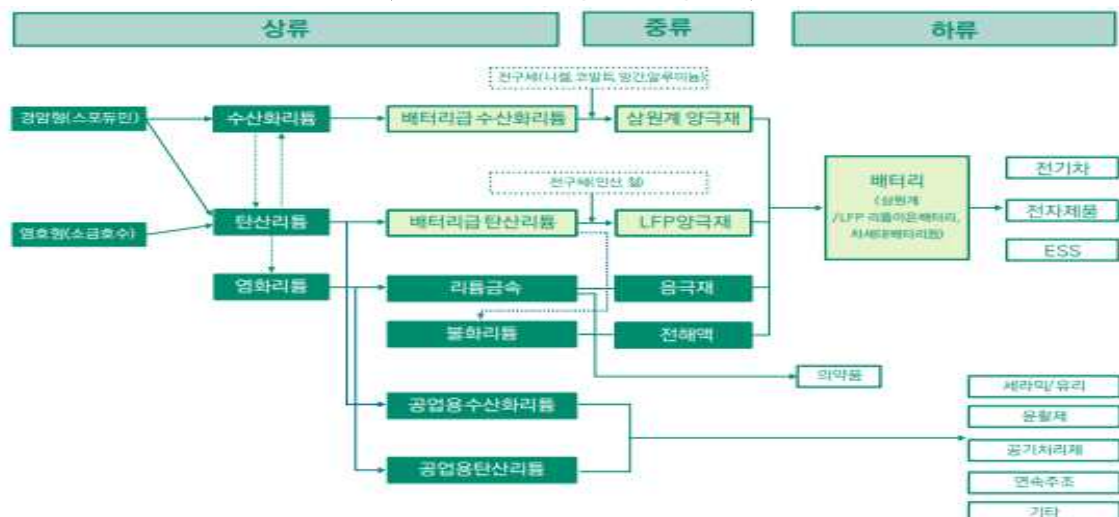


자료 : BNEF, USGS(2022)

■ 리튬 제품

- 리튬은 산출지(경암/염호)에 따라 제련방식과 1차 생산물이 상이하며, 가공을 통해 다양한 형태(배터리·공업용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염화리튬, 리튬금속 등)로 활용됨
 - 고순도(99.5% 이상)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 LiOH)과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Li_2CO_3)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원료로 사용

〈리튬 산업 생산공정 및 공급망〉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리튬 수급·가격 전망

- (수급) 최근 글로벌 전기차·ESS 배터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여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탄력적 공급 구조로 인해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
 - 리튬 생산 프로젝트는 1~1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리튬 생산은 1~2년 단위로 계획되고 개발기간(4~7년)도 길어 수요를 즉각 반영하지 못함
 - 세계 리튬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생산기업의 공격적 증설로 일시적 안정을 찾은 후 2030년에 이르면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가격) 리튬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심한 광물로 향후 전기차 배터리 등 수요 확대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22.3월 리튬 평균가격은 74,869달러/톤으로 신고가를 기록하여 '20년 저점(5,666달러/톤) 대비 13배 상승
 - 당분간 수급 불안이 완화되며 가격급등이 해소될 전망이나, '25년 이후 점진적 가격 상승세를 보인 후 '30년경 글로벌 수요 확대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

■ 한국 리튬 공급망 현황

- 한국은 리튬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20년 중국이 한국의 리튬 수입대상국 1위로 올라선 이후 對中 리튬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
 - 한국의 對中 리튬 수입 비중 : ('20) 47% → ('21) 59% → ('22.1~7) 64% (일본은 50% 수준)
- 최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EU 「원자재법」 도입 추진 및 ESG 기준 강화 등 리튬 관련 환경 및 원산지 규제가 강화되며 중국산 리튬 의존에 따른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분석

美 IRA	· 일정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을 통해 조달하여야 함(매년 역대 조달 기준 상향 조정)
EU 원자재법	· 유럽은 현재 권역 내 심도 있는 자원 맵핑을 실시하는 중으로, 원자재법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대 생산 및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
EU ESG 기준	·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인권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 탄소 발자국 및 공급망 실사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리튬을 유해 물질에 포함하는 조치도 고려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안정적 리튬 공급망 구축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리튬 개발 파트너십 구축, △자원 외교 및 △친환경 제련산업 육성 등 전략적·장기적 대응 필요
- ① 자본집약적인 리튬 개발사업은 국가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기에 **자원기업, 소재기업, 수요기업 및 금융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② 동맹국과의 **자원외교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환경 표준 및 원산지 기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③ **친환경 제련산업을 육성**하여 해외 미가공 원자재를 제련하는 기술·역량을 제고하여 배터리 공급망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 ④ 리튬의 편중된 수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망 공급국인 **호주와 아르헨티나를 주목**할 필요
 - (호주) 세계 리튬 1위 수출국이자 우리나라 광물자원 1위 공급국('21년 우리나라 일반광 수입의 42% 비중 차지)으로 미국과 FTA를 既체결하여 美 IRA 원자재 조달 기준에도 부합
 - (아르헨티나) 정부 주도로 리튬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리튬 삼각지대 국가 중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가장 낮아 진출 유망국으로 평가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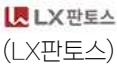
- (사업내용) 선박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既 확보한 정기선박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박(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뭌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table><tr><th>출항지</th><th>도착지</th></tr><tr><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포스코수출물류합적플랫폼 (www.steel-n.com) <div>사업안내 바로가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플랫폼 회원가입② 가입승인(포스코)③ 합적 신청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로지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table><tr><th>출항지</th><th>도착지</th></tr><tr><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tr></table> <p>※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로지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p>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div>사업안내 바로가기</div>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더 신청불가)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tr><th>노선</th><th>출항일</th><th>예약 마감</th><th>서류/화물 (입고)마감</th></tr><tr><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td>수요일</td><td>월요일 12:00</td><td>화요일 12:00 이전</td></tr><tr><td>일요일</td><td>목요일 12:00</td><td>금요일 12:00 이전</td></tr></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div>사업안내 바로가기</div>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p>※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p>	(운임할인 및 지원사업) <div>사업안내 바로가기</div> (10~12월 추가 지원사업) <div>사업안내 바로가기</div>																
		<table><tr><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th>내륙운송</th></tr><tr><th>노선</th><th>출발지</th><th>도착지</th><th>최종도착지</th></tr><tr><td>TCR</td><td>인천(KRINC) 평택(KRPTK)</td><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 (PLMAA)</td><td rowspan="2">유럽 전역 (CZOSR/ DEFRA/DEHAM/HUBU5 /HUOOD/ITVRN/ITMIL/ PLWRO/NLTLB/PLMLA /PLWAW/SKILZ/ESMAD)</td></tr><tr><td>TSR</td><td>부산(KRPUS)</td></tr></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KRINC) 평택(KRPTK)	폴란드 말라세비치 (PLMAA)	유럽 전역 (CZOSR/ DEFRA/DEHAM/HUBU5 /HUOOD/ITVRN/ITMIL/ PLWRO/NLTLB/PLMLA /PLWAW/SKILZ/ESMAD)	TSR	부산(KRPUS)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KRINC) 평택(KRPTK)	폴란드 말라세비치 (PLMAA)	유럽 전역 (CZOSR/ DEFRA/DEHAM/HUBU5 /HUOOD/ITVRN/ITMIL/ PLWRO/NLTLB/PLMLA /PLWAW/SKILZ/ESMAD)																
TSR	부산(KRPUS)																		
[물류 보관]																			
 (칼트로지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table><tr><th></th><th>서비스 내용</th><th>여부</th><th>비고</th></tr><tr><td>1</td><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td>불포함</td><td rowspan="2">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tr><tr><td>2</td><td>물류센터 상하차</td><td rowspan="3">포함</td><td rowspan="3">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tr><tr><td>3</td><td>물류센터 보관</td></tr><tr><td>4</td><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tr></table> <p>※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p>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div>사업안내 바로가기</div>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 5935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안내

■ 「2022년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행사」 참가기업 모집

- 우리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 주요 광산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마련한 바, 관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호주 참가기업 : 호주 대표 이차전지, 희토류 등 분야 광산기업 등 총 8개사

기업명	소재지	주력광종	시가총액 (\$M)	특이사항
Ardea Resources Limited	퍼스	니켈, 코발트	100.9	▶ '16년에 설립된 니켈-코발트 탐사업체로, 서호주 Kalgoorlie PJ 등 보유
Cobalt Blue Holdings Ltd	시드니	코발트	187.5	▶ '16년 설립된 코발트 채굴·제련 전문기업으로 NSW州 내륙 Broken Hill PJ 소유
NiCo Resources Limited	퍼스	니켈	46.8	▶ '21년 설립, 니켈 탐사 및 채굴 기업으로 Central Musgrave 등 PJ 소유
Renascor Resources Ltd.	켄트타운	흑연, 동, 금, 우라늄 등	320.1	▶ '09년 설립된 탐사 및 개발 업체로, 서호주 Siviour 흑연 프로젝트 등 보유
Arafura Resources Limited	퍼스	희토류	405.5	▶ '97년 설립된 핵심광물 광산업체이며, 호주 노던테리토리주 Nolands PJ 등 소유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Ltd(ASM)	퍼스	희토류, 지르코늄	259.3	▶ '00년 Dubbo 희토류 광산 운영을 위해 Alkane Resources의 자회사로 설립, '20.6월 분사한 희토류 개발 전문기업
Hastings Technology Metals Limited	퍼스	희토류	329.2	▶ '06년 설립된 희토류(Nd, Pr) 탐사 및 개발 업체로 호주에 Yangibana 등 희토류 PJ 보유
RZ Resources Limited	브리즈번	희토류	-	▶ '12년 설립된 호주의 광물 모래 자원 채광, 탐사 및 생산에 중점을 두는 업체로 호주에 Copi PJ에 참여 중

• 주요 행사

① 라운드 테이블 ('22.10.12.(수) 15:00~18:00 /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 호주 방한기업의 비즈니스 피칭 및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킹

② 그룹/개별 상담 ('22.10.13.(목)~14(금) / KOTRA 본사 또는 별도 장소)

- 호주 방한기업과 사업 신청 우리 기업간의 1:1 비즈니스 미팅 (기업 수요에 따라 상담 주선)

• 참가비용 : 무료

• 신청기한 : 10.10일(월) 限

- 참가신청 : 문의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직접 발송, 작성 후 회신 요망

- 참고사항 : 개별 상담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므로 상담 희망시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입 요망

- 문의처 : KOTRA 경제협력사업팀 노현주 과장 ☎ 02-3460-7662 / hjro@kotra.or.kr
KOTRA 경제협력사업팀 강호윤 대리 ☎ 02-3460-7669 / hykang@kotra.or.kr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0. 5. 수)

[환율]

	'20.12.31	'21.12.31	'22.8.31	'22.9.29	'22.9.30	'22.10.4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37.60	1,438.90	1,430.20	1,426.50	-0.26%	+19.99%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37.90	1,438.70	1,431.40	1,425.10	-0.44%	+19.76%
₩/CNY	166.04	186.51	194.16	199.58	199.66	200.44	+0.39%	+7.47%
₩/Y100	1,051.19	1,032.48	965.99	994.75	989.89	985.42	-0.45%	-4.56%
Y/U\$	103.34	115.14	138.47	144.65	144.48	144.76	+0.19%	+25.73%
U\$/EUR	1.2279	1.1318	1.0026	0.9658	0.9806	0.9861	+0.56%	-12.87%
CNY/U\$	6.5305	6.3681	6.8961	7.1968	7.0930	7.1135	+0.29%	+11.71%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0.3 (전일)	'22.10.4			
						전일(10.3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88.28	88.82	▲0.5 +0.6%	▲38.8 +77.5%	▲11.7 +15.2%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9.85	95.95	▼3.9 -3.9%	▲8.7 +9.9%	▼24.8 -20.5%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524.00	7,596.00	▲72.0 +1.0%	▼159.5 -2.1%	▼2,096.0 -21.6%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164.00	2,261.50	▲97.5 +4.5%	▲310.0 +15.9%	▼544.5 -19.4%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575.00	21,300.00	▼275.0 -1.3%	▲5,393.0 +33.9%	▲375.0 +1.8%

[반도체]

	'20	'21	'22.6	'22.7	'22.8	9.29	9.30	10.3	10월(~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37	3.11	2.76	2.49	2.48	2.47	2.4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25.4%	-31.6%	-34.0%	-32.0%	-32.0%	-32.3%	-30.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1	6.83	6.57	6.57	6.57	6.57	6.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23.0%	+1.4%	-4.2%	-5.7%	-6.4%	-7.1%	-9.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9.9	'22.9.16	'22.9.23	'22.9.30	전주(9.23)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2562.12	2312.65	2072.04	1922.95	-7.2%	-61.9%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7.29	'22.8.31	'22.9.28	'22.9.29	'22.9.30	전일(9.29)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965	1799	1757	1760	+0.2%	-20.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